

# 무역과 투자

## 수평적 무역으로 전환



수출용 자동차  
(사진제공 : 도요타 자동차)

## 서론

경제의 세계화가 촉진됨에 따라 일본과 북미, 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과의 무역 및 투자 관계도 확장되고 깊어졌다. 20세기 후반 일본의 무역에서 중심의 경제 호황은 다각화된 무역 규제 완화에 따른 발전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과 국제 무역 기구(WTO)의 영향에 크게 힘입어 발전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부분적으로 WTO 협상과 관련한 문제들이 다변화하고, WTO 회원국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이해 관계가 상충하여 정체되었다. 최근에는 국제적인 WTO 협상 보다는 당사자 간의 자유 무역협정(FTA)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한편 2013년,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TPP)에 일본의 협상 합류가 허용되어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였다. 처음에 12개국이었던 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TPP) 협정은 2017년 1월에 미국이 이탈을 발표함으로써 2018년 3월에는 칠리에서 미국을 제외하는 '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에 관한 포괄적 및 선진적인 협정(CPTPP 또는 TPP11)'이 서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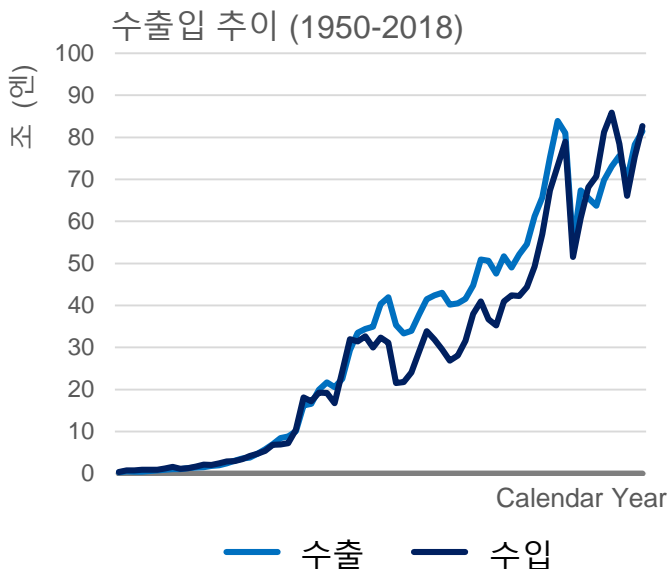
## 무역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일본의 황폐로 지속적인 무역 수지 적자와 고질적인 외환 보유액 부족이 계속되었으나, 1952년 일본은 국제 통화 기금(IMF)에 참여하게 되고 3년 후에는 GATT에도 가입하였다.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말에 걸쳐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광범위한 국내 산업 기반 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적인 수출 능력이 급속도로 향상되었다. 이 당

시의 일본 무역은 원재료를 수입하여 완성품을 수출하는 가공 공장으로서의 수직 모델이었다. 1964년 일본은 외환에 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한다는 IMF 헌장 8조의 기준과 일치함을 공표하고 근대화화 고도 성장에 박차를 가하였다. 1960년대 후반, 일본의 무역 수지는 흑자로 돌아섰지만, 일시적으로 1973년과 1979년의 오일 쇼크 때에는 무역 수지 적자가 발생하였다. 1980년대 일본의 무역은 생산된 제품의 수입과 수출이 모두 수평적인 모델로 빠르게 변화하였다.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 국가의 수출 및 수입이 전체 국제 무역에서 급증하게 되면서, 일본도 동아시아, 특히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아졌다. 21세기에 들어서는, 미국의 경기 과열과 중국 경제의 활황으로, 수출입이 순조로운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2008년 가을 리만 쇼크를 발단으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몰려와, 일본의 수출을 감퇴시켰다. 또한, 원유가의 상승 등으로 수입 총액이 확대되어, 28년 만에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원유가의 상승 등으로 수입 총액이 확대되어 28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더욱이 생산 감소와 국내 유통에 따른 원자재 수출 감소로 인해 적자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전례 없는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재건에 필요한 자재 수입도 증가하였다.



## 수출

195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수출 구조는직물과 경공업 제품에서 벗어나 중공업 제품으로 변화하였다. 1970년대에는 화학제품이나 철강과 같은 산업 원자재 수입이 감소하고, 부가가치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 기계와 전자 제품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컴퓨터와 반도체, 전자 제품, 기계 장치, 복사기, 자동차와 그 외 운송 장치와 같은 기술 집약형 제품의 수출이 급증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는 부분적으로 일본 기업의 해외 생산 설비 건설로 인해 수출 비율이 격감하였다. 무역 마찰로 인해 자동차 회사와 그 밖의 회사들이 미국과 유럽에 공장을 세우게 되었으며, 치솟는 엔화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회사들이 노동 집약적이고 복잡하지 않은 부품과 제품들은 생산 시설을 중국이나 그 외 아시아로 이전하여 생산하게 되었다. 일본의 생산 공장들이 중국으로 진출함에 따라, 주요 장비, 설비 및 부품에 대한 수출도 급증하게 되었다. 2010년 이후 정부 성장 전략의 핵심 부분으로 간주되는 신흥 경제성장국에 대한 인프라 수출은 꾸준한 상태를 유지해 왔다.

## 수입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주요 수입품은 가공하지 않은 섬유로, 이를 가공하여 직물을 생산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중공업산으로 변화하여 주요 수입품은 탄화수소 연료와 철광석이었다. 1970년대에는 2번에 걸친 오일 쇼크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였고 1980년대에는 광물성 연료가 총 수입품의 약 50%를 차지하였다. 최근에는 원유 가격의 변동에 따라 광물성 연료 비율이 총 수입품의 15%에서 20%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총 수입품 중 가공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대가 20%, 1980년대는 50%, 1990년대에는 60%로 증가해, 서구의 선진 경제 비율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 되었다. 가공 제품의 수입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일본 기업들이 1980년대 이후 해외에 설립한, 주로 중국과 그 외 아시아로 이전한 생산 설비로부터 일본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중국과의 무역은 1990년대

후반부터 확대 일로를 달렸다. 중국 내 수요가 확대되고,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일본의 중국 진출이 가속되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확대를 거듭하고 있다. 컴퓨터와 그 외 정보 기술 제품도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텔레비전과 같은 몇몇 수입 가전제품의 판매액은 일본 국내 생산 제품의 판매액을 넘어서었다.

## 무역 마찰

일본이 여러 산업에 사용되는 원료와 식량 및 원자재의 수입 비율이 높지만, 이들은 다시 부가 가치를 더한 제품으로 형태를 바꾸어 일본과 교역하는 많은 나라로 수출되어 큰 이익을 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1950년대 중반부터는 종종 무역 마찰을 초래하였다.

1980년대 초반까지의 무역 마찰은 ‘덤핑’(생산국에서의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해외에서 판매하는 행위) 제품의 판매에 대응하기 위한것으로, 주로 늘어나는 일본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의 항의로 일본은 면화 제품(1957), 철강(1969), 양모와 합성섬유(1972), 컬러TV(1977) 그리고 자동차(1981)와 같은 수출품을 의도적으로 제한하였다. 일본은 1972년 유럽으로 수출하는 철강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반면, 1980년대 초반부터 특히 미국과의 무역 마찰의 쟁점은, 외국계 기업을 일본 시장에 더 진출시켜 소위 ‘비관세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일본으로의 수출을 증가시키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었다. 수입 자유화를 목표로 일본 정부는 상호 관세를 삭감하고, 수입 제한을 철폐하며, 규격 증명 체계를 개선하여 수입 증가 캠페인과 같은 단계적인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였던 농산물 수입 자유화는 소고기, 감귤류 및 그 밖의 많은 음식물에 대해서 수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하였다.

시장 개방 정책의 시행 속도가 불만스러웠던 미국은 1990년대 초반, 반도체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과 같은 제품에 대해서 일본장의 점유율을 미리 정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는 일본의 격렬한 반대로 이어졌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무역 마찰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점차 많은 나라가 협상하는 WTO와 같은 국제 무대로 옮겨가게 되었다.

미일 간의 무역, 경제 문제는 미일 경제조화대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상되고 있다. 2019년 10월 7일에 미일 무역 협정의 서명이 워싱턴 DC에서 이루어져 2020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본 협정은 일정한 농산품과 공업품의 관세를 철폐 또는 감축하는 것이다. 일본 측은 돼지고기나 소고기 등과 같은 농산품이나 가공 식품의 관세를 철폐 또는 감축하고 미국 측은 공업제품의 관세 철폐 또는 감축한다는 것이 정해졌다.

미국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대일 무역 적자는, 1981년의 70.8%를 최고치로 1992년 이후 서서히 하락하였다. 2007년에는 10.5%까지 낮아졌다. 일미 경제 관계는 대일 무역 적자의 감소와 투자 관계의 강화와 WTO에 의한 분쟁 해결 시스템 개선 등으로 무역 ‘마찰’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통한 ‘협조’관계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일본은 2014년의 12조 8160억 엔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무역 적자를 겪었는데, 다행히 2015년부터는 무역 적자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 투자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의 회사들이 해외 경제에 참여하게 된 분야는 주로 상품 수출이었다. 1980년대부터는 직접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늘리기 시작하였다.

주요 원인은 엔화 상승으로 인해 생산 공장을 해외로 이동하면서, 고품질, 저임금을 찾아 동남아시아나 중국으로 이동한 전자 및

유니크로'의 해외 진출(파리 오페라좌 점)



전기 제품 생산자들과, 수요가 급증할 것  
에 상하여 중국과 같은 나라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생산 설비를 이동한 것이었다.

1980년대, 일본의 해외 직접 투자는 주로  
미국과 유럽이었다. 1990년대에는 아시아에  
대한 투자액이 증가하였다. 재무성과  
일본은행의 국제 수지 동향에 따르면, 일본의  
2008년 대외 투자 금액은 13조 2300억  
엔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52%가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8년 가을 글로벌  
금융 시장 동요로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2011년 이후에는 다시 상승해 왔다. 수송 기계  
기구용 투자 등, 제조업 관련 대책이 커다란  
견인력이 되었다.

미국의 회사들과 비교하여 일본의 회사들이  
다국적 기업이 된 속도는 느렸지만 세계화를  
향한 움직임은 계속되었다.

## 국제 수지

국제 수지 분석에서 자주 사용되는 요소는  
국가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인 무역 수지이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은 지속적인 무역 수  
지 흑자를 달성하였고 1980년대에는 급속히  
증가하였다. 1994년에는 12조 3900억 엔이  
라는 기록적인 흑자를 달성하였지만, 수입 활  
동이 증가하고 다른 여러 요인들로 인해 1996  
년에는 6조 7400억 엔으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일본 경제가 침체하고 수입 활동이  
저하되었고, 미화의 강세와 맞물리면서  
1998년에는 다시 흑자 규모가 16조 800억  
엔을 기록하였다. 그 후 흑자 규모는 변동을  
거듭했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으로  
하락세를 겪었다.

1996년 일본은 국제 수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공식적인 통계를 엔과  
달러의 2가지 방법이 아니라 엔으로만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상품 및 용역 항목에서 상품 무역과 용역  
무역이 조화를 이루게 되었고 장기와 단기  
자본 수지 항목 간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용역 무역과 국제 자본의  
흐름이 증가하는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일본의 경상 수지 내에서, 일본은 경상 이전  
수지와 서비스 수지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보여  
왔다. 용역 무역이 적자인 원인은 수송비,

자동차 제조업자 및 그 외 일본 해외 지사의  
특허 사용료 등의 수입 증가로 부분적으로  
상당히 감소하였다. 경상수지는 2008년  
가을에 불어닥친 글로벌 경제 위기의 영향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무역 적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주로 화력 발전소에  
사용하기 위한 연료의 증가 때문에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의 전체적인 경상수지는 외국인  
방문자의 일본 내 소비 증가로 인해  
2015년에 흑자로 돌아섰다. 무역수지 적자도  
원유가 하락으로 대폭 감소했다.